

복지와 문화로 대중과 교감



원경 스님이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밥을 퍼주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시절 저소득 아동 돌기 모습



원경 스님을 비롯한 심곡암 신도들이 무료급식 재개를 알리고 있다.



심곡암에서 열린 산사음악회 모습



'보리수 나무 아래' 공연에서 무대에 선 원경 스님

“처음에 음악회를 열 때는 사찰 수행분위기를 헤친다며 염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보다 많은 대중이 사찰로와 불교를 접하는 계기가 됐지요.”

심곡암에는 이후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분위기에서 교감하는 장이 마련되고 지역 사회에 문화예술인들을 엮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래서 일가, 심곡암 신도 중에는 특히 문화예술인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이가 영화 '명량'과 '황'로 유명한 김한민 감독이다. 김 감독은 심곡암에서 기거하다 시피하며 영화 구상을 진행했다. 2009년 영화 '핸드폰'으로 흥행실패를 맞은 김 감독에게 “오뚜기처럼 일어나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예술을 하는 이들은 도인과 같다”며 김 감독의 불교적 내공이 깊다고 평가했다.

“법화경 화상유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으러 가는 중 지쳐 포기할 때쯤 뛰어난 지도자가 신통력을 발휘해 안식처를 마련해주시니 모두가 원기가 회복돼 다시 정진의 길로 갑니다. 영화를 비롯한 우리들의 문화가 그런 존재예요. 아름다운 세계를 잠시라도 보여주면 많은 대중들이 힘을 얻고 다시 정진할 것입니다.”

다방면에 조예 깊어, 문화포교 앞장

다도와 전통 무술에 조예가 깊은 원경 스님은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수행도 중 느낀 점을 향기로운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스님은 <그대, 꽃처럼>이라는 시집과 산문집 <그대 진실로 행복을 바라다면, 소중한 것부터 하세요> 등을 펴냈다. 찬불가 '오시리 가시리'의 작사도 담당하는 등 찬불가 제작에도 일조했다.

“스님이 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선시라고 했습니다. 큰 스님들은 선과 시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장 하나에는 인간 본연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스님은 2010년부터는 소림무공도 닦고 있다. 소림무공 72절기를 한국에 전래한 화엄선사의 3대제자인 포자관장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았다. 스님은 맨손 장력공과 나한장봉을 익혀 월정사 무도대회 등에서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무술은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장단이 있고, 완급이 있고, 고저가 있고, 강약이 있는 예술이 있어요.”

스님이 무술을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이들이 있을 만도 하지만 스님은 개의치 않았다. “무공 시범을 3차

레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주저할 만도 한데 천진하게 해요. 다른 이에 상대적인 것이 아닌 스스로의 극복이기 때문이죠. 문무겸비, 정혜쌍수 의미로 수행의 방편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포교의 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면 활용할 예정입니다.”

스님은 “탐갈공원에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소림무술을 배우는 자리도 추진하겠다”며 밝게 웃었다.

스님은 끝으로 다른 스님들이 복지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스님들이 주축이 돼 사회참여에 나서 때 불교가 산다며 그 무엇보다 스님들의 활발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가 하기 전부터 관음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관음보살의 성품은 실천이 섞여 있어서, 불교가 장풍 속의 불교, 금고 안의 불교가 되지 않으려면 거룩한 가치와 보배가 세상을 향해 쓰여져야 합니다. 스님들 중에는 복지학과 출신이 많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부입니다. 이런 능력이 갖춰서는 안됩니다. 1사찰 1복지의 원력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스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정월 웃놀이를 하나되는 사부대중

한 해가 밝아오면 전국 사찰에서는 정초산림기도(7일)입재를 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화엄성증님을 염호하며 가족건강, 만사형통, 무병장수, 수복강녕 성취발원기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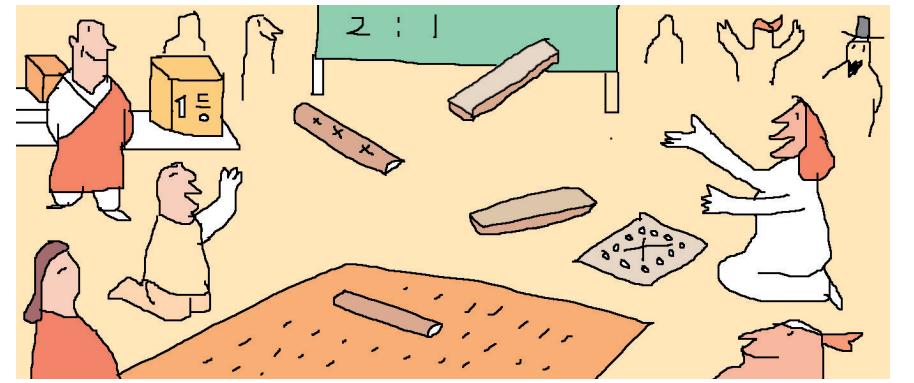
올해 원각사도 많은 신도들을 모시고 여법하게 정초산림기도 회향을 했다. 7일 동안 매일 정초기도에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 몸도 피곤하고 체력도 바닥이 난 상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주지로 부임하고 나서 매년 '정월 대보름 원각사배 웃놀이 대회 행사'를 열고 있어서다. 이전에 대구 적멸보궁 용연사 종무 재직 중에 신도들과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웃놀이 대회의 장을 개최 했는데 내 생각대로 '대박'이었다. 그때 경험

내 역할은 행사 진행과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보는 것이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원각사배 웃놀이 대회 행사를 한다고 하니 BTN불교TV에서 촬영도 왔다. 인터뷰 요청이 있어 인터뷰까지 했다. 원각사를 알릴 수 있구나 좋은 일이기도 했다.

예선과 8강, 4강전이 끝나자 이번이 일이었다. 우승 후보였던 공양간 팀과 지역 파출소 팀이 4강에서 탈락했다. 목소리가 우렁찼던 노보살님 팀도 고배를 마셨다. 노보살님은 나에게 “스님이 안 도와줬어요”라고 투정을 부리신다.

결승은 원각사 니르바나합창단과 원각사 종무소 팀이 맞붙었다. 다들 우승의 욕심이 있는지 웃을 던질 때마다 신중하다. 나 역시 긴장해 가면서 공평하게 심판을 볼 수밖에 없었다. 모나 웃이 나오면



그림·박구원

을 살려 지역 사찰과 주민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전법 표교를 위해 원각사에서 웃놀이 대회를 연 것이다.

보름 전부터 웃놀이 대회를 한다고 공지를 했더니 신도들은 벌써부터 들떠서 좋은 기색이 완연했다. 다음 올해는 꼭 우승을 위해서 집에서 연습도 했다고 한다.

작년에는 5인 1조로 6팀이 참가했으나 올해에는 12팀으로 늘었다. 지역에서도 우승 한 번 해 보겠다고 원각사에 원정까지 오신 지역 파출소 팀, 동사무소 팀, 자율방범대 팀이 동참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선물도 여러 곳에서 지원 받아 즐겁게 마련했다.

드디어 제2회 정월대보름 원각사배 웃놀이 대회가 시작 되었다. 역시 노보살님들의 저력은 대단 했다. 우기는 데는 당연 최고였다. 평상시 법당에서 기도 할 때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날은 푸짐한 상품이 있어서 그런지 부처님 놀라실 정도로 목소리가 우렁찼다.

이곳 저곳에서 한숨소리와 동시에 들려오는 함박 웃음소리. 법당 앞마당에 신도들이 옹기종기 둘러 앉아 웃을 던지며 기쁨을 나누는 표정. 즐거운 표정을 보면서 기쁨은 두 배였다.

구경하던 사람들 내일처럼 함성을 지른다. 결과는 원각사 니르바나 합창단 팀원이 우승 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고 합창단은 기쁜 나머지 절 마당에서 한바탕 춤을 춘다. ‘뭘, 오늘은 부처님께 서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미소를 지어 본다. 우승팀 확정 이후에는 대회에 동참해 자리를 빛내준 도반, 후배, 기도 스님과 함께 번의 경기를 진행했다.

두 손에 푸짐한 상품을 들고 원각사 일주문을 나서는 신도들의 컷모습을 보며 가슴 속부터 밀려오는 뜨거운 정을 느꼈다. 그리고 멀어져 가는 신도와 지역민이 사위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합창 반배를 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처음 주지로 왔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웃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지 잘 살피고 원각사 사부대중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음과 소통 그리고 사중 화합의 해법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행복의 파랑새가 내 옆에 있었듯이.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 ▶ 봉축 리본
- ▶ 지하철현수막
- ▶ 봉축현수막

세로거치형 현수막

- ▶ 종이등표
- ▶ 종이주름등
- ▶ 가야지비연등
- ▶ 차걸이
- ▶ 고급 칼라연등
- ▶ 설화등
- ▶ 가야공단등
- ▶ 비닐만일등
- ▶ 공단/실크/수입사등

법보시 염주

어린이 합장주 (6mm, 7mm, 8mm)

오색 합장주 8

경면주사 108염주 (6mm, 7mm, 8mm)

오색 108염주 (6mm)

합장주 10

2015 연등 특별공급 (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